

#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화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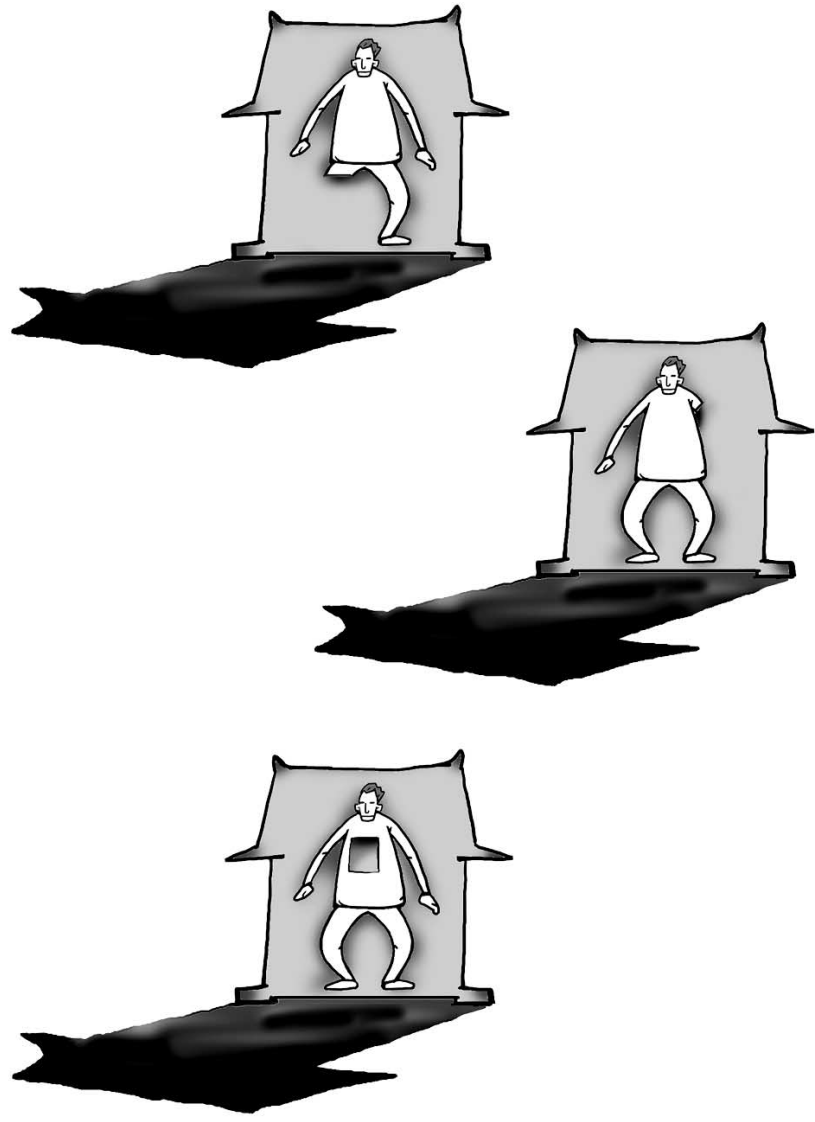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없으면 좌석버스도 타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불편하면서도.

요즘 많이 생각하는 의문이 뭐냐 하면, 도대체 등산하다 넘어진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어디 눈에 보이는 상처 부위가 있어서 진행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은 현세의 어떤 업이 아니라 전생에서 제가 무슨 업을 지어 가지고 온 모양인데, 이게 무슨 업으로 내가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넘어 나가다 보면 그 업도 금생에 녹여져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해서 큰스님께 여쭙고 보고자 나왔습니다.

▲큰스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과거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두 부부 사이에서 몸 하나를 받아서 내 영혼과 인연의 줄을 다 끊고 한데 합쳐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 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인연들이 전부 내 배낭 속에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데 그 나오는 중생들의 의식은 좋고 나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러야 된단 얘깁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한마음이다. 한마음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을 한다.' 이러면 원수였던 마음이 그냥 까맣게 잊혀지고 그냥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뭐 특별히 우뚝 솟는 거는 없다 하지만 차차차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이지 밝은 세상을 사시게 됩니다. 아까도 질문할 때에 나의 과거를 몰랐지만, 내가 이렇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걸 배워서 모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어저께가 따로 있고 오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질문자(남): 큰스님,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

살면서 그 의식과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세세생생에 끄달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왜 끄달리느냐? 내 몸체가 죽은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몸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못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도 모르고, 아주 캄캄합니다. 눈이 뜨이지도 못하고 귀가 뜨이지도 못해서, 그 의식만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내 몸 속에 있는 인과로부터, 그 수없이 천차만별로 나오는 거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벌써 내 모습과 모든 것이 그전에 살아 있을 때처럼 있는 줄 알고 감을 못 건네갑니다. 예를 들어서 유(有)의 세계에서 무(無)의 세계로 건너가야 할 텐데 건너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빠져 죽을까 봐, 체가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네갑니다. 셋째, 이 불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불바퀴 속을 넘어서야만이 우리가 해방되는데, 그 불바퀴 속을 넘어설 수 없는 이유는 내 몸이 있는 줄 알고 타 버릴까 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넘어가는 겁니다.

## 어저께가 따로 있고 오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과거는 없어요. 그 배낭 속에 있어 가지고 배낭 속에서 지은 업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몸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괴로움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애고로 반영되기도 하고, 유전성으로도 되고 영계성으로도 되고 아주 뭐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이려면 모든 것에,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거기서 나온 거니까 무조건 거기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낫게 해서 끌고 다니는 것도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자기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세요. 이열치 열이란 말도 있고, 거기다 놓으면 거기서 해결이 나는 겁니다. 모든 게 녹아지고요.

그것이, 즉 말하자면 인과로 인한 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두 관습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업이 달리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두 살이 관습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도 세포 하나하나에 중생들이 들어 있으면서 악이면 악으로 깊어지고 하고, 선이면 선으로 깊어지고 두서없이 나오는

뻘 보겠습니다. 우문이 뭘지 모르겠습니다. 천도재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여름 티베트 왕사인 달라이 라마 스승이 환생했다는 링린포체라는 동자승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국 사찰을 순회하면서 설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보고 의정이 난 것은, 제 소견으로 천도재는 조상님이 열반하시고 나면은 다시 환생하기 전에 '좋은 곳으로 환생하십시오.' 라는 후손들의 간절한 뜻으로 지내는 재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링린포체처럼 새로운 육(肉)을 받아서 금생에 다시 태어났다면 육과 종전에 조상이었던 영이 하나가 돼서 금생을 지나가는 어떤 동자승일 텐데, 그 동자승님이 어느 날 다시 육으로 금생에 살다가 홀연히 육에서 빠져나와서 전생의 자기 자손들한테 가서 해도 끼치고 또는 복도 좀 주고 가르침도 주고 해코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요?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 천도재는 지내는 시기가 있는 건지요? 아니면 그렇게 인도환생한 이후 자손들이 조상님을 위해서 천도재를 계속 지내 드려야 좋은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큰스님: 조상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라,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모의 천도를 시키는데 부모가 전자에

가까워서 그 의식, 관습이 남아서 돌아가니까 첫째, 강 주변에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언덕을 넘어야 할 텐데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배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천년이 가도 그만이요 만년이 가도 그만이다 이 겁니다. 한생각이면 건너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를 이 생시에 몰랐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렇게 모른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 줄 알고 천 척이나 아들이나 딸한테로 맘을 도는 거죠. 넘어가질 못하니까, 맘을 돌면서 자기는 산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왜 내가 말하는 거 듣지도 않고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먹을 것도 저희들만 먹고 나는 안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부모가 자식을 해코지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사는 동안에 부모 자식이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왜냐? 죽어지면 사대(四代)는 흩어지고 마음은 저 구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 도리를 알아야 사대가 무너지면 활활, 그냥 여윌 텐데 살아서 여윌어야 죽어도 여윌 텐데 그렇지 못하고선 그냥 발버둥칠치고 분기가 나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붙어서 분기가 나게 하고, 저기 붙어서 분기가 나게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11월 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9면에서 계속

또 직장 일에도 무관심한 건 아니었지만 주어진 여건을 소화만 해 나갔는데도, 역시 또 생각보다 빠른 진급을 했습니다. 금년 7월이요.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인정을 해도 잘 안되더니 그냥 맡겨 버리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더군요. 이것이 맡기는 도리인지, 그래서 진급도 이렇게 해서 되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환자라는 생각과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넘어지면 어렵거나, 차를 못 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염려하는 버릇이 없어져서 경우에 따라서 자가용이

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면, 제가 환자여서 지금 현재 불편하면서도 환자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있고, 그냥 평소 생활을 하다가 오르막길이든지 내리막길이든지, 현실에 부딪쳐서야 '아, 참! 내가 아프지.' 하고 그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도리인지 지금도 의정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병도 그렇고

### 불교방송 성지순례 참가자 특별 모집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마음의 여행!!"

:: 인도 성지순례 ::

부처님의 향기가 서려있는 땅, 인도 그 광활한 대륙으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불교방송이 인도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룸비니동산, 부다가야, 녹야원, 쿠시나가라, 타지마할과 법화경 설법지 라지그르 등을 돌아보게 될 이번 성지순례는 10박 11일이고 출발은 10월 24일입니다.

함께하실 지도법사는 신행상담실을 진행하시는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스님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705국에 530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참 금 : 1,990,000원(10박 11일)
- 비 자 : 여권, 사진 3장
-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보험, 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비자비등
- 출 발 일 : 2007년 1월 12일

:: 라오스, 베트남 성지순례 ::

불교방송이 라오스와 베트남 성지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번순례는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중의 하나인 왓트시엥롱을 참배하고 6천 840분의 부처님을 모신 왓시사켓과 성스러운 동굴사원인 팍오동굴을 순례합니다. 또한 천여개의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진 베트남 하롱베이도 관광합니다.

지도법사는 양주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스님이며 이번 순례는 6박7일 일정이며, 출발은 11월 25일입니다.

문의는 불교방송 전화 705국에 5301번에서 2번입니다.

- 동 참 금 : 1,320,000원(6박 7일)
-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 보험, 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비자비등
- 신청 마감 : 출발 10일전
- 출 발 일 : 11월 25일 (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불교방송 전화 705-5302, 또는 019-9731-7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